



**한국뇌연구원**  
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보도자료**

**힘내라 대한민국**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자료문의) 시설안전팀 기술원 권용우 (☎053-980-8272, mark630@kbri.re.kr)

## 한국뇌연구원, 3년 연속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선정

- 한국뇌연구원(KBRI, 원장 서관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20.10.28) 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KBRI는 2018,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활동이다. 20년 올해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 안전대진단 추진 충실성과 기관 참여도 ▲ 점검결과 적절성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추진계획의 타당성 ▲ 코로나19 대응조치 등 여러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 KBRI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①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지속적 재난·안전사고 대비활동 ② 임직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안전문화 확산 등 자율적 노력 ③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의 적극적·체계적 운영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KBRI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재난취약시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시적 정비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상시적인 재난대응 모의훈련으로 초기 대응 역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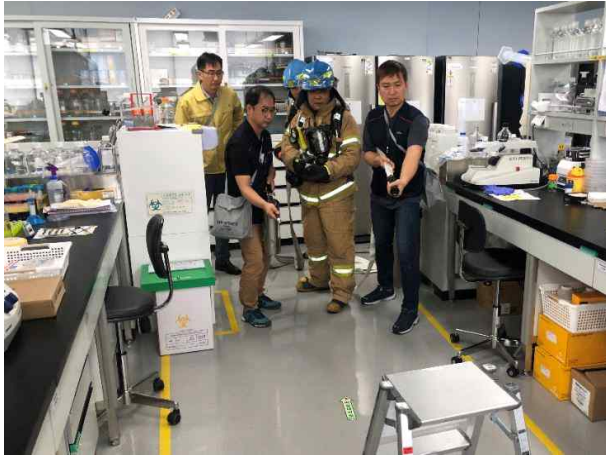
강화하고 재난대응체계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안전 공모전과 재난대응 캠페인 개최, 우수기여자 포상, 온라인(모바일) 상시 교육 시스템 도입 등 전 임직원이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을 선정하여 연구실험실 안전 표준 모델로 선정하고 있다.
- 특히, 올해 경우 코로나-19에 대해 조기 대응하고 감염병 원천차단을 위해 비상대책반(5개 반)을 편성,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KBRI는 우수한 재난대비 및 재해 사고예방 노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2018년~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2019년, 2020년) 등을 연이어 수상하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중 안전관리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KBRI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일부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개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우수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계획이다.

□ KBRI 서판길 원장은 “3년 연속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문화 정착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전 임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자발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밝히며, “항상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과 선제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1) 한국뇌연구원 시설안전팀에서 유해물질 취급 연구실험실의 안전화재 진압 및 안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2) 한국뇌연구원에 연구실험실의 유해 화학물질 누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